

“신앙은 영적 실체이다”

사도행전 23:1-11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잡아 성밖에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이 소문을 들은 천부장과 로마군인들의 손에 의해 구출됩니다. 그리고 천부장께 부탁하여 군중들을 향해 히브리 방언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된지에 대해 간증을 합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자, 천부장이 바울을 부대 안으로 들여보낸 후, 다음날 공회를 소집해서 바울을 그 앞에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행 23:1)**

바울은 자신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은 대제사장을 자극하게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행 23:2-3)**

바울은 거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분노하자, 오히려 그를 향하여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며 반발합니다. 법정앞에서도 공회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도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행 23:4-5)**

바울이 반발했던 그 대상은 바로 대제사장이었노라고 주변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바울은 즉각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도전을 중단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맞는 논리를 지니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요 19:10-11)**

예수님은 재판의 내용에 동의가 되지 않았지만, 재판 자체를 부정하거나 재판장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부정한 것이었음에도 오히려 그 결과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의도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위 자체에 대해 도전하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내 생각과 의견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는 순종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다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인도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행 23:7-8)**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렇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고,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이며 신본주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본인이 바리새인임을 밝히고 부활에 대한 언급을 하자, 군중들은 두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인 바울이 못마땅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었던 바울을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구원이 증명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급반전하며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약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행 23:9)**

우리는 사실여부를 판단하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진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환상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행 23:11)**

여러분, 신앙이란 '관념'이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신앙에 대해 자신있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담대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 16:33)**

모세 이후, 새로운 리더십이 된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수 1:6)**

우리가 과연 언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면 강하고 담대해 집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단 11:32)**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강하고 담대해 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1-22)**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로 인한 죄책감에 지나치게 매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 강하고 담대해 집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나니까, 눈 앞에 있는 장애물은 전혀 그에게 어려움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혹시 소극적이고 주눅들어있는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추상적이고 막연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뚜렷하고 구체적이며, 실존적인 영적실체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로 경험하는 영적 실체를 통해 담대한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제사장임을 알고 난 후에는 말을 삼가고 도전을 중단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지만, 리더십에 순종하며 따랐던 경험이 있거나 간접적으로 체험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신앙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하는 영적 실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실체를 경험한 사람만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언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밑줄 그은 부분을 참고하되, 위의 세가지 외의 사례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